

## 「藥山 吳光運의 『書經』 해석 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영건(한국국학진흥원)

본 연구는 오광운의 『약산만고』에 수록된 「서경」과 관련된 논설들을 오광운의 정치 수사와 비교하여 오광운의 정치적 입장을 고명한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 방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여 본 논문을 읽고 저의 느낀 바를 서술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문제입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약산 오광운의 『서경』 해석 양상”이라고 하면서 2장에서 오광운 경서 해석의 특징이라는 주제보다 더 큰 내용을 목차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추려서 서론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묘록』 후서의 내용을 보면 오광운은 理를 공으로 보고 氣를 私의 개념으로 본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경」에서 말고 다른 경전의 해석에서도 보이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서경」이라는 정치적 관련 저서에 한정하여 보이는 해석입니까?

3. 오광운의 天理之公, 公의 명분론을 오광운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초기 이력과 1740년 만언소를 예시로 들어 오광운의 정치적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天理之公, 君臣의 契畧 등은 오광운의 상소와 경전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 문인들이 상소와 경전 해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를 오광운의 경전 해석 특징으로 넣으려면 좀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광운이 청남의 지도자로 영조의 탕평책을 도운 모습을 중심으로 「서경」 해석 양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으로 본다면 당대 남인이 출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광운이 청남의 입장에서 정치적 행동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기존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어 탕평책 및 공공의 의리의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 아닐까 조심히 한번 주장해봅니다.